



보도시점 2025. 12. 14.(일) 11:00
12. 15.(월) 조간

배포 2025. 12. 12.(금) 16:00

민·관·학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동물백신 연구 협력 방향을 함께 논의!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백신 연구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 정부, 산업체, 학계가 참여하여 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동물백신 연구 필요성 동감, 급변하는 현장 상황을 반영한 동물백신 연구 방향 논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민·관·학이 모인 「동물백신 연구 협의체」 2차 회의를 12월 10일(수) 경북 김천 소재 검역본부에서 개최하였다.

「동물백신 연구 협의체」는 민·관·학이 함께 동물백신 연구 개발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현장 맞춤형 동물백신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 5월에 마련되었으며, 수의과대학 교수진과 주요 국내 백신 제조·연구 산업체 등 백신 분야 최고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검역본부의 ‘국내외 백신연구 유관기관의 연구 분석 결과를 통한 동물백신 연구 방향 논의’ 발표와 (주)신테카바이오 이호영 부장의 ‘동물백신에 있어 인공지능(AI) 적용 방안’ 발표 이후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동물백신 연구에 있어 민간에 대한 지원 강화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주요 논의 내용은 △ 국가재난형 가축질병·인수공통감염병 백신 연구 강화, △ 생물안전3등급 시설 민간개방 확대 및 정밀분석장비 확충 등 임상지원 기능 강화 그리고 △ 학술토론회(심포지엄) 및 주제를 토론 등 백신 정보 교류 기능 강화 등이었다.

또한 인공지능(AI) 적용 시 인체백신에 비해 동물백신은 축종이 다양해 연구의 복잡성이 더 높아지는 부분은 있으나, 오히려 동물질병의 다양성·변이성이 큰 점과 그간 축적된 유전체 정보 등 자료가 많다는 점이 인공

지능(AI)을 통한 예측 및 백신 연구에 더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과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연구과제 기획 시 자문단을 구성하여 활용할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하여 이를 활용한 차세대 동물백신 연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번 협의체를 통해 민·관·학이 적극적인 소통·교감과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동물백신 개발 및 상용화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2025년 동물백신 연구 협의체 2차 회의 사진

담당 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백신연구센터	책임자	센터장	박종현 (054-912-0902)
		담당자	연구관	이윤희 (054-912-0903)



회의진행



단체사진